

# 環境界 短信 動靜

## 環境과노라마

### 환경청 6개

### 都市에 支庁 신설

정부는 지난 23일 환경업무를 적극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대기의 4산 영향권 및 하천 유역권별로 3개 지방환경지청을 신설하고 환경청 폐기물처리과를 국(局)으로 승격시키는 등 환경청직제를 확대 개편키로, 이날 국무회의의 연결을 거쳐 확정된 환경청직제개편안에 따르면 기존의 6개 지방특정사무소와 14개 공단상주 지도점검반을 통합하여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원주 등 6개 도시에 환경지청을 설치, 지방환경 행정업무를 총괄토록 했다.

이에 따라 환경지청은 빠르면 내달 중에 발족되며 각 지청별로 계획과, 지도과, 측정분석과 등 3개

과를 두게 된다.

환경지청은 수계(水系) 및 대기 영향권별로 권역내 오염도 측정 및 공해배출업소 단속과 함께 중앙환경행정의 집행 및 확인, 지역실정에 적합한 환경보전시책 수립,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업무 조정, 지방자치단체 및 배출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등 권역별 환경업무를 조정지도하게 된다. 지청장은 이사관(2급) 또는 부이사관(3급)으로 임명된다.

### 산업폐수 재활용시 자가측정 이행여부

기업체에서 생산공정상 발생하는 각종 산업폐수를 자체 정수처리 후 재활용하는 경우가 부쩍 증

가하고 있다. 특히, 제지업계에서는 원료 회수의 일환으로 산업폐수를 재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원가절감면에서나, 고농도의 부유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폐수를 처리하여 방류하는데 소요되는 폐수처리 비용을 절감하는 이중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은, 개별 기업체에서 환경오염물질을 공공수역이나 대기중에 방류하거나 확산시키는 최종 단계의 오염물질 허용농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므로 해당 기업체에서 발생하는 폐수나 배출가스 중에 환경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일 경우에는 별도의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요하지 않는다. (이 경우 환경보전법 제15조 2항의 단서 규정에 의거 환경청장

에게 방지시설 면제신청을 하여야 함). 그런데, 산업장의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산업폐수를 외부로 배출하지 않고, 전량 재이용하는 경우에 환경보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측정을 이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일선 배출업소에서 혼선이 있어 왔다. 다행히 이 문제에 대하여 환경청에서 자가측정의 의미가 없다고 결론짓고 이를 전국에 시달하였다.

가. 질의 요지

폐수 배출시설에서 산업폐수가 하루에 500m<sup>3</sup> 발생되어 이를 폐수처리장에 정수후 공장 외부로 배출하지 않고 집수조(저장지)에 보관 후 전량생산 공정수로 재활용시 환경보전법상의 자가측정을 이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나. 회신 요지

환경보전법에서 사업자에게 자가측정의 의무를 부여한 것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이용하여 법정허용 기준치 이하까지 처리함에 있어 사업자 스스로 그 배출 및 처리정도를 측정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궁극적으로는 외부로 배출되는 방류수 수질의 적정수준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외부로 방류되는 폐수가 전혀 없다면 법에서 부여한 자가측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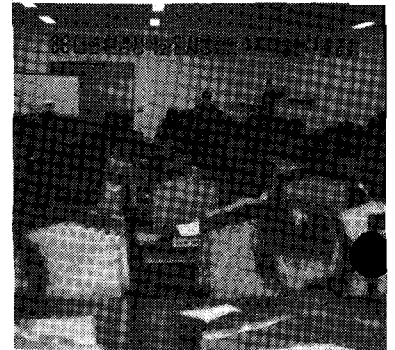
의미는 없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재사용의 적정여부 판단을 위한 자가측정은 사업자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이므로 법상 자가측정 의무와는 별개 사항이라 할 수 있을 것임 (수관 01254-9575, 86. 10. 18.)  
-부산지구중앙지도 점검반 자료 제공

## 대한환경공학회 임시총회 및 추계 학술연구 발표회

대한환경공학회(회장 정재기)에서는 지난 10월31일~11월1일 양일간 충북대학교에서 임시총회 및 추계학술 연구발표회를 개최하였다. 특별강연으로 시작된 학술발표회에는 수질분야, 대기분야별로 새로운 학술연구논문들이 발표되기도 했는데 수질분야에서는 오존에 의한 Alachlor농약 Tah 폐수처리시 Alachlor제조폐수의 영향, 3단계 생물학적 유동층을 이용한 질소성분의 제거, 무심천의 자정능력평가, 호기성 생물학적유동층을 이용한 폐수처리에 관한 연구, 가정오수의 오염부하량 원단위에 관한 조사연구 등 여러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대기 및 기타 분야에는 분말형이온 교환수지에 의한 사성 폐액의 처리방법에 관한 연구, 연돌의 물리적 인자변화에 해지점 대기질 농도의 영향연구, 사이클론의 부분집진 효율 예측에 관한 연구, 간접포기형 생물집상에 의한 분뇨처리장 악취제거에 관한 연구 이외에도 많은 주제발표가 있었는데 이날은 제 1 발표장과 제 2 발표장으로 나누어 열띤 발표로 환경 분야에 학술연구의 기능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 계기였으며 많은 학술인들의 참여로 자리를 빛내 주었다.

또한 대한환경공학회 주최로 11월6일 오후 3시30분에 한국건설연구원에서 미국 California대학 토목공학과 David Jenkins교수를 초청하여 특별강연회를 갖는다.



### \* 표지인물을 말한다 \*

대한환경공학회 초대 및 2대 회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서울시립대학 환경공학과 교수이시며 한국 폐기물학회 부회장으로 계신 김 동민 박사를 이달의 표지인물로 모셨다.

김 박사님은 1931년 서울에서 태어나 동아대학교 토목학과를 졸업하시고 Delft 공과대학(화란)에서 위생공학 Diploma, 또한 미국 California 대학교(버클리) 위생공학 석사학위, 고려대학교에서 환경공학박사학위를 취득하셨으며 교도대학(일본) 공학부 초빙학자로 역임하신 바 있고, 상하수도 기술사이시며 학계에서 많은 활동외에도 정부보건의사회 및 환경청, 서울특별시, 세계은행 콘설탄트 등 자문역을 맡아오셨다.

한편 서울시립대학에서 환경기사 자격소지자의 기술개발 및 실험실습을 통해 후진양성에 일익을 담당하고 계시며 저서로는 폐수처리(김 수생공저) 외 몇편이 있다.